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적응과 진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University Adaptation and Career of College Students Chosen by Admissions Officers System

김현주, 김경미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Heon Joo Kim(heonjkim@handong.edu), Kyungmi Kim(kmkim@handong.edu)

요약

이 논문에서 우리는 입학사정관제가 잘 정착되어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도와 기존의 입학제도로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졸업 후 진로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졸업한 09학번과 10학번들 중에서 세가지 영역에 대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404명을 대상으로 평균차이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 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취도였으며, 학업성취도는 입학사정관제 선발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시행한 H대학이 그동안 입학사정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 중심어 : | 입학사정관제 | 대학생활만족도 | 학업성취도 | 졸업후진로 |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if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is settled down successively. We compare two groups, one admitted by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and the other admitted by the usual system in term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status after graduation. In this paper, 404 students, who had graduated in 2016 and had data on three indices were analyzed by mean difference test and Chi-squared tes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statistically. The main factor on the career status after graduation is the academic performance rather than the admission system. This means the H university, which has been chosen as the leading university for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since 2008, has settled down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successfully.

■ keyword : | Academic Achievement | Admission Officer System | Career Status after Graduation | School Life Satisfaction |

I. 서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산업화를 성공시킨 원동력이며, 지금까지도 우리의 경쟁력이며 자랑이다. 1950년에는 초등교육 의무화, 1985

년에 중등교육 의무화, 1980년 초반부터는 고등교육이 대중화 되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이 된다. 이후 2000년도 들어서면서 고등교육이 보편화 되고[1], 고급 전문 인력 양성과 만 5세아 무상교육 등이 시행되어 정착되었다.

접수일자 : 2017년 01월 11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3월 02일
교신저자 : 김경미, e-mail : kmkim@handong.edu

이렇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고등교육과정의 대등고등교육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학 진학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높은 교육열을 기반으로 대학입시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계층상승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등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입시 준비에 집중되어왔으며 고등교육과정 시기에 경쟁력 있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교육 의존도는 아주 높은 상태이다. 하지만 더 이상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계층상승의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도 어렵다.

1995년 대학교 설립이 준칙주의로 바뀌면서 대학은 300개가 되고, 대학 입학정원은 65만명이 되었다. 보통한 나이 대에 65만 명~70만 명이 태어나고, 대학 졸업생은 65만명에 육박하니 이 중 반가량만 대학 졸업생이 원하는 수준의 직장에 취업하거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대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대학 간 기능 미분화와 전공 및 대학 간 격차의 확대, 교육여건의 악화 및 정원 미충원 대학의 증가, 노동시장에서의 고등교육 인력수급 문제, 대학진학의 요건 및 학생의 진학, 취학 패턴의 문제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1].

한편 최근 3년간 대학 모집인원 평균은 총 61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 인원은 2020년에 입학 가능한 2001년 출생자 수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대학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2023년 학령인구는 43만 명이지만 대학에 진학하게 될 학생 수는 33만 명으로 추정된다. 대학의 실제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다면 대학은 살아남기 위하여, 학생이 진학하고 싶도록 교육경쟁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2].

전술한 중등, 고등교육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과정에서 수학하는 동안 인지도가 높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적합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 가능 하도록 제안된 정책이 입학사정관제이다. 최근 입학사정관제의 공식

적인 명칭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 명칭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고등교육과정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 운영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각 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자율화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2007년 10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이후 3단계 정착방안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어 2014학년도 에는 126개 대학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약 13% 를 선발하였고[3], 점차 확대되어 2015년에는 전체 4년제 대학 총 입학정원의 약 15.6%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였다[4].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었고, 대학과 고교가 연계되어 대학의 전공탐색이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되게 하였으며, 각 대학에서는 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신입생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 시행되면서, 초기에 목표로 한 제도 운영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5], 이러한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조사하고[6], 또한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 성과를 다룬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활 성과의 근거를 학업성취도로 알아보는 연구들은[2][5][7][9-11]이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은 [2][8][9][13]에 나타났으며, [6][7][14]는 학교생활 적응도를 측정하여 대학생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2013년 초반까지 이루어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연구를 연구주제별로 분류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개선 방안 연구가 29.0%, 평가요소/방법 관련 연구는 14.0%, 정책분석 관련 연구는 8.4%, 입학생 특성 분석 연구는 8.4% 등으로 나타난다[3]. 기존 연구를 분석해보니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진로교육이나 진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15-18], 대학 졸업 후 진로와 입학전형 또는 입학사정관제의 관계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성과를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졸업 후 진로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세가지 측도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과 비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평균비교분석과 카이제곱 분석을 통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교무처에서 제공 받았고 졸업 후 진로 현황은 교육부에서 정한 4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시점에서 졸업이 가능한 09학번과 10학번을 대상으로 다음 연구 주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입학전형과 유형에 따라 1학년 학교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입학전형과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 전체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입학전형과 유형에 따라 졸업 후 진로가 상관이 있는가? 넷째, 대학 학업성취도와 졸업 후 진로는 상관이 있는가?

II. 관련연구

대학생활에 관련된 관련연구는 대학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 학교생활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와 진로교육 및 진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대학 학업성취도

대학 입학 후의 학업성취도와 학습역량을 평가하거나 입학전형과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신입생 때의 교양과목 수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며[2], 입학사정관 입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참여도가 높고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더 많이 하며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 정도가 높았지만, 학업성취도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5].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정시모집 입학생들에 비해서 학업성취도가 높고,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의도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7]. 입학전형별 입학생 학업성취도는 수시 입학사정관전형, 수시 논술전형, 정시 수능전형 순으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9]. 입학 후 1년간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하니 입학사정관 전형과 아닌 전형 입학생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10]. 정시전형에서는 전공계열 간에 사회적 능력, 초인지 전략, 학습 환경 조성 전략에 차이가 없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2. 학교생활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

학교생활만족도 관련 연구는 입학사정관제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닌 학생들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는 [9][12][1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8]에 나타난다.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이 일반 전형 입학생들과 비교해서 대학만족도 향상, 휴학, 자퇴 감소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으며, 학점에서만 유의하게 입학사정관제 입학생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생활적응도 분석 결과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재학생들이 타 전형에 비해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으며[9],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 비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에 비해 저소득층이 더 많고, 사교육을 덜 받았으며,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으며 대학생활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12]. 또한 대학 신입생 대상 설문결과, 학교적응도, 학교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에 있어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이 타 전형 신입생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13].

대학 신입생 중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 7명과 일반 전형 신입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 비교한 결과,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과 일반전형 신입생들 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차이는 '목표의식'이며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여 입학하였고, 대학생활 과정에서 이 목표들이 더 구체화 되어간다고 진술하였다[14].

3. 진로교육 및 진로결정요인

대학생의 진로교육과 진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특정학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15], 전공과 무관하게 선정된 학생들은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16-18]에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진로 관련 연구는 주로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과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결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증가시키고 진로스트레스를 개선한다[15].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은 어떠한지 연구한 결과, 경력개발,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술,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진로계획수립, 효과적 대인관계 형성 순으로 나타났다[16]. 한국교육고용패널 3'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재학 기간별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탐색행동변인을 살펴보니, 재학기간이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진로탐색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취업자들의 대학 재학 기간 중 취업을 위한 노력이 취업 후 임금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니, 임금에는 학교생활 중 복수전공과 토익점수만이 영향력이 있고, 직무만족에는 학교 평점, 복수전공 및 토익점수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중에 입학사정관제와 대학 졸업 후 진로 관계를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하여 졸업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서, 분석대상자 수가 커지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2008년에 H대학은 입학사정관제도 시행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하는 신입생 수를 늘려왔다. 지난 8년간 선발된 신입생들의 입학 후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보면 입학사정관제 전형 신입생 수를 늘린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입학사정관제도를 자리매김해 나가면서 H대학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 상에 걸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선발 기준 유형이나 전형 방법 등에 해마다 변화를 주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로 처음 입학한 09학번과 다음 해인 10학번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졸업 후 진로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졸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휴학이나 군복무 등으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이르기 때문이다.

H대학에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2014년 제외) 매년 11월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수업만족도와 학교생활 분포와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자료로부터 본 연구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졸업한 09학번과 10학번 학생들 중에서 진로가 파악되고 설문에 응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들이 신입생 시절에 응답한 설문결과와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는 SPSS ver21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표 1]에서 2009년, 2010년에 입학한 학생들을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를 기준으로, 2016년 4월 이전에 졸업한 학생 인원을 보여준다.

표 1. 09와 10 학년 입학전형별 학생분포

입학전형	유형	합계	09학번	10학번
입학사정관제	전체	581	102	479
	졸업생 (2016/4기준)	188	72	116
비입학사정관제	전체	1025	701	324
	졸업생 (2016/4기준)	576	435	141
합계	전체	1606	803	803
	졸업생 (2016/4 기준)	764	507	257

본 연구에서 대상 학생은 2009년, 2010년에 입학하여 2016년 4월 기준으로 졸업을 하였으며 재학 시 수업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학생이며, 수집된 전체 자료를 세부전형 기준으로 분류하면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입학전형별 학생분포

입학전형	유형	합계	09학번	10학번
입학사정관제	학업우수	43	0	43
	잠재력	34	14	20
	사배자	13	0	13
	글로벌	57	27	30
	소계	147	41	106
비입학사정관제	학업우수	223	171	52
	잠재력	10	10	0
	사배자	23	23	0
	글로벌	1	1	0
	소계	257	205	52
합계		404	246	158

입학전형에서 ‘학업우수’전형이라 함은 고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10학번인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 학업우수자 추천전형도 있었다. ‘잠재력’ 전형은 대안학교나 자기추천이며 09학번에서는 산업미술이나 어학특기자도 이 전형으로 입학하였다. ‘사배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북한귀순 동포와 더불어 H대학의 정체성에 따라 농어촌 목회자 자녀까지 포함된 전형이며, ‘글로벌전형’은 연속 2년 이상 고등학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 해외근무자 자녀, 기타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을 의미한다.

7년 동안 기 진행된 설문분석 자료로부터 09학번과 10학번 학생들이 1학년 때 실시한 수업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발췌하였다. 전체 설문문항의 개요는 다음 [표 3]과 같으며 이 중에서 학교생활 만족도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표 3. 설문문항 개요

설문 분야	소분야	척도
수업관련	수업전체만족도	Likert 5점척도
	수업분야별만족도	Likert 5점척도
	평균평점만족도	Likert 5점척도
	만족도 중요도	Likert 5점척도
전공선택관련	수강한전공기초과목	명목척도
	전공선택	명목척도
	전공선택기준	Likert 5점척도
신앙생활	신앙활동	명목척도
	신앙생활만족도	Likert 5점척도
	신앙활동만족도	Likert 5점척도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분야	명목척도
	학교생활만족도	Likert 5점척도
기타	학비조달 등	명목척도

2009년과 2010년의 입학사정관제의 유형 이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4가지 유형(학업우수, 잠재력, 사배자, 글로벌)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잠재력과 사배자 유형이지만 비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경우가 있었으며, 반대로 2010년에는 학업우수자가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경우도 있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결과는 전술한 네 가지 연구문제에 기반하여 기술한다.

1. 입학전형에 따른 1학년 학교생활 만족도

입학전형에 따라 가장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1학년 때의 수업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 생활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집단 간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수준 5%에서 차이가 없다.

표 4. 입학 전형별 생활만족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값	p-value
입학사정관제	147	3.4048	0.6578	-0.679	0.497
비입학사정관제	257	3.4514	0.6663		

이 결과는 09학번(t-값 0.109, p-value=0.913)과 10학번(t-값 0.528, p-value=0.598)을 나누어서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입학전형에 따라 1학년 학교생활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가지 입학유형(학업우수, 잠재력, 사배자, 글로벌)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5. 입학 유형별 생활만족도 비교

입학유형	합계	평균	표준편차	F-값	p-value
학업우수	266	3.4417	0.6583	1.356	0.256
잠재력	44	3.5455	0.7219		
사배자	36	3.2500	0.7020		
글로벌	58	3.4310	0.6030		
합계	404	3.4344	0.6628		

09학번(F-값=2.087, p-value=0.103)과 10학번(F-값=0.736, p-value=0.532) 각 각에 대해서도 입학유형별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없으며, 이는 입학전형과 동일한 결과이다. 즉, 입학사정관제 혹은 비입학사정관제 등 입학의 형태와 1학년 때의 대학 생활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 입학전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표 6]는 입학전형에 따라 졸업 시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결과이다. 09학번과 10학번 전체적으로 보면 입학 전형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입학 전형별 학업성취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값	p-value
입학사정관제	147	3.6129	0.3487	-0.195	0.846
비입학사정관제	257	3.6197	0.3373		

그러나 학번별로 나누어서 분석해보면 09학번인 경우에는 입학전형에 따라 차이가 없지만(t-값=1.335, p-value=0.183), 10학번의 경우에는 다음 [표 7]에서처럼 유의수준 5%에서 비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번별 입학 전형별 학업성취도 비교

	입학전형	N	평균	표준편차	t-값	p-value
09학번	입학사정관제	41	3.6720	0.3356	0.335	0.183
	비입학사정관제	205	3.5965	0.3295		
10학번	입학사정관제	106	3.5900	0.3525	-2.028	0.044*
	비입학사정관제	52	3.7113	0.3552		

이는 09년도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하였으나 10학번인 경우에는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요소의 평가비중을 높여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입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10학번에서는 4가지 입학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값

=1.306, p-value=0.274) 반면 09학번인 경우에 입학유형에 따라 [표 8]에서처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평균 3.7457)이 잠재력전형(평균 3.4696)보다 확연하게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학년 수업부터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많은 H대학의 특성으로 글로벌 전형 학생들이 영어 수업 적응기간이 필요없거나 짧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표 8. 학번별 입학 유형별 학업성취도 비교

	입학유형	합계	평균	표준편차	F-값	p-value
09학번	학업우수	171	3.6035	0.3341	3.138	0.026*
	잠재력	24	3.4696	0.3433		
	사배자	23	3.6300	0.2760		
	글로벌	28	3.7457	0.3028		
	소계	246	3.6093	0.3310		
10학번	학업우수	95	3.6575	0.3334	0.306	0.274
	잠재력	20	3.6800	0.3482		
	사배자	13	3.4846	0.3776		
	글로벌	30	3.5723	0.4169		
	소계	158	3.6299	0.3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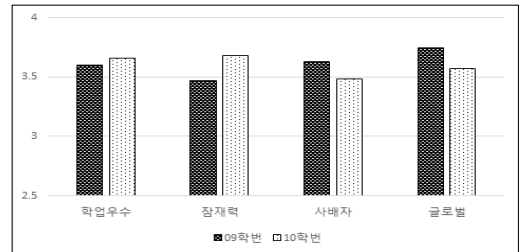


그림 1. 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이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10학번보다는 09학번이 입학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입학전형과 졸업 후 진로 관계

2016년 4월 기준으로 H대학에 등록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입학전형과 졸업 후 진로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취업의 기준은 교육부에서 정한 4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측값 3명을 제외한 401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입학전형과 졸업 후 진로의 취업/미취업에는 [표 9]의 결과처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입학 전형별 졸업 후 진로 비교

	전체	진로 상태		카이제곱	p-value
		취업	미취업		
입학사정관제	145	83	62	0.917	0.341
비입학사정관제	256	159	97		
합계	401	242	160		

이는 09학번(카이제곱값=1.433, p-value=0.295)과 10학번(카이제곱값=0.488, p-value=0.601)을 각 각 나누어서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4가지 입학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입학유형과 졸업 후 진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값=2.284, p-value=0.516) 교육부의 취업자로 분류되는 군입대자와 대학원진학자의 수에 대해서도 각 입학전형별(카이제곱 값=1.737, p-value=0.420)과 4가지 입학유형별(카이제곱 값=4.173, p-value=0.653)로 분석한 결과 모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입학 전형별 졸업 후 진로 비교

	전체	진로 상태				카이제곱	p-value
		취업	대학원	입대자	미취업		
입학사정관제	145	51	28	4	62	2.612	0.455
비입학사정관제	256	98	58	3	97		
합계	401	149	86	7	159		

또한 취업자 중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과 중소기업이나 벤처 등으로 취업한 학생들의 분포가 입학전형과 4가지 입학유형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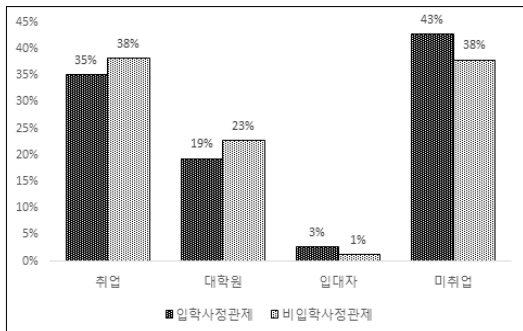


그림 2. 입학전형별 진로상태

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9학번과 10학번 각각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는 졸업생들의 진로와 이들의 입학전형이나 유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 2]는 입학 전형별 진로상태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입학전형과 진로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학업성취도와 졸업 후 진로의 관계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입학 전형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앞 분석에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대학의 학업성취도와 졸업 후 진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표 11. 학업성취도와 졸업 후 진로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value
취업	242	3.6696	0.3142	3.752	0.000**
미취업	159	3.5411	0.3653		

[표 11]에서처럼 학업성취도는 취업한 그룹과 미취업한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9학번(t 값=2.963, p-value=0.003)과 10학번(t 값=2.275, p-value=0.024)을 각 각 나누어서 분석해도 유의수준 5%에서 취업한 그룹과 미취업한 그룹의 학업성취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12]에서 보이는 것처럼 취업자 중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원, 취업, 미취업, 입대 순으로 진로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입대자의 학업성취도가 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표 12. 학업성취도별 졸업 후 진로 형태

진로형태	N	평균	표준편차	F-값	p-value
취업	149	3.6415	0.2929	7.695	0.000**
대학원	86	3.7387	0.3248		
입대자	7	3.4186	0.4396		
미취업	159	3.5411	0.3653		
합계	242	3.6187	0.3408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 졸업 후 진로 상태가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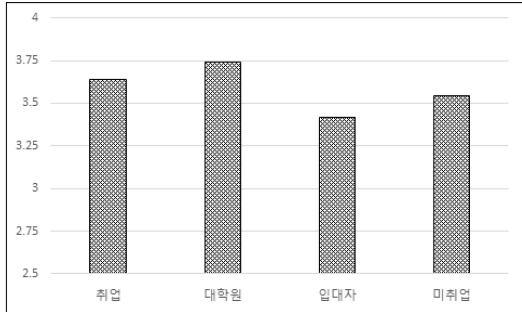


그림 3. 진로상태별 학업성취도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비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을 비교군으로 두어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졸업 후 진로 현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여, 입학사정관제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비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과의 학교생활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한 1학년 학교생활만족도는 대학생들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만족도이므로 두 집단 사이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입학전형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대학 학업 성취도에서는 10학번에서 비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09년도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하였으나 10학번인 경우에는 성적을 제외한 요소의 비중을 높여서 반영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들의 졸업 후 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입학유형(학업우수, 잠재력, 사회배려자, 글

로벌)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 유형이나 전형이 졸업 후 진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 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학전형보다는 대학 중 학업성취도였으며,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원이나 취업한 학생이 많은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학업 성취도는 입학전형이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H 대학의 학교 교육이 입학 유형에 관계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등학교 시절 학업성적은 다소 부족하여 입학할 수 없었던 학생도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입학이 가능하였으며, 입학 후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 후 진로 상태도 비입학사정관제도 학생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정시 입학생보다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결과[7][11]과는 대조적으로 두 개 그룹 간에 학업성취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도에서 전형 유형을 적절하게 구성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생들 만족도 분야에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기존연구[9][13][14]와는 달리 두 개 그룹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H대학이 가지는 기독교대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동질그룹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안한 세 가지 연구문제에서 입학사정관제나 아니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2008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시행한 H대학이 그동안 입학사정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대학교육과정이 각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중에 입학사정관제와 대학 졸업 후 진로 관계를 주제로 다룬 처음 시도이며,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하여 졸업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를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참 고 문 헌

[1] 김안나, 이병식, “한국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 재구조화의 현황과 정책 방향,” 한국교육, 제31권, 제2호, pp.415-440, 2004.

[2] 김현주, 김경미,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상관관계 분석 사례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6권, 제6호, pp.1283-1293, 2015.

[3] 김성남, “국내 입학사정관제 관련 연구동향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2호, pp.163-183, 2013.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별 시행 현황,” 보도자료, 2015.

[5] 김준엽, 박소영, 신혜숙, 민병철, “대학에서의 학습 및 활동을 중심으로 본 입학사정관제 성과,”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pp.9-50, 2013.

[6] 백승희, 정혜원, “대학 입학생의 대학생활 성과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pp.251-280, 2016.

[7] 김지하, 이병식,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교육성과 차이 분석,” 교육과학연구, 제41권, 제2호, pp.209-230, 2010.

[8] 이광현, 권용재,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들과 일반전형 학생들의 대학생활 비교 분석,” 교육문제연구, 제51권, pp.23-47, 2014.

[9] 임진택, 조민경, 김효희, “입학전형별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입학전형연구, 제3권, pp.91-110, 2014.

[10] 최석준, 김병수,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자와 수능중심 전형 입학자간의 학업성취도 비교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4220-4227, 2010.

[11] 조명희, 이현우, “대학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전공계열별 신입생의 학습역량 차이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7권, 제3호, pp.163-179, 2014.

[12] 윤성이, 민희, 김은혜, 김명옥, “입학사정관 전형 입

학생 성과연구,” 입학전형연구, 제2권, pp.165-191, 2013.

[13] 전경애,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508-517, 2012.

[14] 한미현, 배상목, “대학입학유형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1호, pp.46-53, 2015.

[15] 박효미, 이혜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304-312, 2015.

[16] 김현순, 김지효, “대학생의 진로인식에 따른 진로 교육 요구도 차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pp.651-659, 2016.

[17] 김지효,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9권, 제1호, pp.123-139, 2016.

[18] 임다희, 조일형, 권기현, “대졸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제16권, 제3호, pp.529-554, 2014.

저 자 소 개

김 현 주(Heon Joo Kim)

정희원



- 1989년 2월 : 경북대학교 통계학과(이학사)
- 1991년 2월 : 경북대학교 통계학과(이학석사)
- 1995년 2월 : 경북대학교 통계학과(이학박사)

- 1996년 ~ 1997년 : 미국 Purdue대학교 Post.Doc
- 1998년 ~ 1999년 : 창원대학교 국책교수
- 1999년 ~ 현재 : 한동대학교 GLS학부 교수

<관심분야> : 빅데이터분석, 데이터마이닝, 프로그래밍교육

김 경 미(Kyungmi Kim)

정회원



- 1987년 2월 :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이학사)
 - 1992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정보학과(경영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박사)
 - 1986년 ~ 1996년 :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계산소 기술원
 - 1997년 ~ 현재 : 한동대학교 GLS학부 교수
- <관심분야> : 프로그래밍교육, 통신, 센서네트워크, 라우팅프로토콜, 정보보호